

아동중심실천연구

Journal of Association Of Child-centered Practice

제18권 제1호

-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손태순
-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 서희경

2023년 6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아동중심실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차 례

제18권 제1호 / 2023. 06. 30

논문 제목	저자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손태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의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	서희경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손 태 순**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I시와 H시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아버지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Pearson 적률상관 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및 과몰입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참여보다 아버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마다 디지털매체 사용이 급격히 확산된 오늘날,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사용유발환경,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유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하고 이를 완화시키는 가정과 사회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스마트폰 과몰입

※ 투고일 : 2023년 04월 29일 / 수정본 접수일 : 2023년 0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06월 20일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 미르 어린이집 원장 (ssonts@daum.net)

I. 서론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맞돌봄 문화가 확장되면서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연스러워졌다(최혜순, 2017). 최근 COVID-19의 여파로 육아휴직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4.7%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0. 8. 18 발표).

이는 자녀 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부모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양미경, 1996; 이용이, 2007)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도모하는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9)는 점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아버지 역할의 변화와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버지 효과(Father Effect)’라는 말을 탄생시킨 Parke(2000)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유아의 감정 이입 능력을 발달시키고, 인지능력을 촉진하며(송민선, 2009), 인격 형성과 발달지향에 도움을 주고(정현희, 최경순, 1992), 아버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유아의 성취동기 함양에 영향을 준다(성수현, 1996). 또한 자녀의 정서조절,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유능성, 성역할 발달, 신체발달 등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설경옥,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상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헤미, 이희영, 2012).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공동양육자인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 부모 역할에 대한 양육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있다(김미정, 하지민, 2013; 김정아, 2018)는 연구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서 심리적인 안녕감은 물론,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Abidin, 1992; 문혁준, 2005; Crininc & Low, 2002) 부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인지하는 어려움이나 부담감의 정도(고성혜, 1994)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로 인한 부담과 긴장, 자녀 양육으로 인해 증가된 가사노동과 통제하기 힘든 자녀 특성으로 인한 부담감 정도를 말한다(오재연, 유구중, 2007). 특히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재구, 201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는 낮게 나타나는 등(양미란, 김은정, 2016)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실질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들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아버지로서 자녀와 시간을 함께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자책감을 가지거나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진아, 2009;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

혜진, 김유경, 진미정, 2010).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질 높은 양육참여를 저해시킬 수 있으며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등 수월한 육아활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고서린(2014)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와 피로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필요에 의해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보다 양육을 더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아버지들의 경우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규호(202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특히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유아의 스마트 기기 과몰입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2019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는 99.9%가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하였고 3~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1.2%로 주 평균 17.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81.2%가 동영상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재미를 즐기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만3~9세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2.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고 만3~5세의 고위험군 비율은 1.7%, 잠재적 위험군은 19.3%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의 방식으로 영유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유아는 자기 통제력 및 자기 행동 조절력에 미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은 시력저하를 발생시키고 뇌의 불균형 발달로 인지능력과 주의집중을 떨어뜨리며(김지영, 2016) 유아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조은하, 2017)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박옥순, 2018). 유아기는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vygotsky는 아동발달을 촉진시키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핸드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의 실태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교육에 유익한 정보와 상담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I시와 H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7곳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의 아버지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COVID-19로 인해 지면 설문지를 배포한 어린이집의 설문지 회수가 어려워 494부의 설문지 중 321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과 누락 및 무응답이 있는 자료 12부를 제외한 309부를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09)

변인		구분	N (%)
아	연령	30대	159(51.5%)
		40대 이상	150(48.5%)
버 지	가정의 총수입	200만~300만	32(10.4%)
		300만~400만	71(23%)
		400만~500만	81(26.2%)
		500만 이상	125(40.5%)
자녀	성별	남아	166(53.7%)
		여아	143(46.3%)
자녀	연령	만3세	80(25.9%)
		만4세	126(40.8%)
		만5세	103(33.3%)
배우자	취업 여부	취업모	228(73.8%)
		비취업모	81(26.2%)

2. 연구도구

1) 아버지 양육참여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현(2014)이 개발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문화지원 4문항, 사회·정서지원 4문항, 교육지원 3문항, 공동양육 3문항, 자기성장 5문항으로 총 19문항이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측정은 아버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문항별 반응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의 *Cronbach's a* 계수는 .92로 설문지의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놀이·문화 지원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여 자녀들이 놀이를 통한 집단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지원적 양육참여 내용	4	1,2,3,4	.82
사회·정서 지원	개인 간 정서교류를 기반으로 사회생활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며 도와주는 내용	4	5,6,7,8	.79
교육지원	자녀의 교육적 호기심을 지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내용	3	9,10,11	.77
공동양육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내용	3	12,13,14	.76
자기성장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자녀양육기술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내용	5	15,16,17,18,19	.83
전체		19	1-19	.92

2)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취업모 용으로 개발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적합하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원척도에서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가 어렵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기저귀나 옷이 젖은 채로 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다,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얼굴이나 손이 더러워서 화가 난 적이 있다, 아이의 잘못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사람들 때문에 힘들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취업모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고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를 ‘양육비용이나 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로 수정, ‘할머니에게 애를 맡기게 되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를 ‘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되었다’로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교육전공 교수 1인과 유아교육현장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았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11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12문항,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3문항으로 총 27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a* 계수는 .92로 설문지의 신뢰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가 태어난 이후 변화된 생활환경에 대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11	1,2,3,4, 5,6,7,8, 9,10,11	.88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12	12,13,14,15,16, 17, 18,19,20,21,22, 23	.89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타인에게 자녀 돌봄을 맡길 때 겪는 스트레스	4	24,25, 26,27	.71
전체		27	1-27	.92

3)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윤태정(2015)이 개발한 만 3, 4, 5세 유아 대상 스마트폰 과몰입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화·유발하는 부모의 양육환경을 살펴보는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 정도를 살펴보는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하위요인의 의미가 서로 상이하 여 하위요인을 통합하여 살펴보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유아교육전문가 2인의 협의를 거쳐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유아 스마트폰 사용유발 환경과 유아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으로 구분, 이를 각각 살펴보았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유발환경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은 이상발달 7문항, 과도한 추구 6문항, 집착적 사용 4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아버지가 자신의 현재 모습과 유아의 태도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문항별 반응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 유발환경 위험이 높고,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Cronbach's a* 계수는 .72, 유아의 과몰입 증상의 *Cronbach's a* 계수는 .94로 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 환경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강화,유발하는 부모의 양육 환경	5	1,2,3,4,5	.72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발달 지연 및 퇴행 증상 (이상발달)	7	6,7,8,9,10, 11,12	.88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성 (과도한 추구)	6	13,14,15, 16,17,18	.88
증상	스마트폰 이용에 과몰입하는 유아의 행동적 특성 (집착적 사용)	4	19,20,21,2 2	.90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 전체	17	6~22	.94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우선,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간, 경기도 I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의 유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중복된 질문이나 모호한 문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조사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다. 우선, 연구자가 경기도 I시와 H시 소재 어린이집에 유선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후 연구 협조 의사를 표명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유아반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를 동의하는 가정에 질문지 배부를 요청하였다.

만 3, 4, 5세 유아반에 재원중인 자녀의 아버지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321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309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과몰입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산출 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과몰입 증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끝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각 하위요인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및 유아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수준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통계 값을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 값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자료는 왜도 $-0.52 \sim 1.15$ 사이, 첨도 $-0.50 \sim 1.69$ 사이로 Kline(2011)의 정규분포 기준인 $| \text{왜도} | < 3$, $| \text{첨도} | < 10$ 기준에 의거 절대값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버지 양육참여 기술통계 (N=309)

하위요인	M	SD	실제값(범위)		왜도	첨도
			최소	최대		
놀이·문화지원	3.43	.82	1.00	5.00	-.32	.42
사회·정서지원	3.85	.64	1.00	5.00	-.52	1.69
교육지원	3.60	.73	1.00	5.00	-.31	.57
공동양육	3.80	.76	1.00	5.00	-.52	.59
자기성장	2.83	.79	1.00	5.00	-.00	.18
아버지 양육참여 전체	3.50	.59	1.00	5.00	-.41	1.36

<표 5>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평균 $3.50(SD=.59)$ 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정서지원($M=3.85, SD=.64$), 공동양육($M=3.80, SD=.76$), 교육지원($M=3.60, SD=.73$), 놀이·문화지원($M=3.43, SD=.82$), 자기성장($M=2.83, SD=.79$)의 순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기술통계 (N=309)

하위요인	M	SD	실제값(범위)		왜도	첨도
			최소	최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2.67	.64	1.00	4.18	.32	-.22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2.37	.65	1.00	4.58	.15	-.00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2.87	.82	1.00	5.00	.23	-.17
양육스트레스 전체	2.56	.57	1.19	4.11	.21	-.08

<표 6>과 같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2.56($SD=.57$)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M=2.87, SD=.82$)으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M=2.67, SD=.64$)이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M=2.37, SD=.65$)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COVID-19 시기에 자녀를 타인에게 양육시키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및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및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 (N=309)

	M	SD	범위		왜도	첨도
			최소	최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2.88	.65	1.00	4.60	-.01	.17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						
이상발달	2.36	.69	1.00	4.86	.18	.26
과도한 추구	2.56	.84	1.00	4.50	.12	-.50
집착사용	1.93	.88	1.00	5.00	.94	.74
전체	2.33	.70	1.00	4.35	.23	-.05

<표 7>과 같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유아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은 5점 만점 중 평균 2.88($SD=.65$)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은 5점 만점 중 평균 2.33($SD=.70$)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추구($M=2.56, SD=.84$), 이상발달($M=2.36, SD=.69$), 집착 사용($M=1.93, SD=.88$)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표 8> 아버지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48**	.46**	.48**	.46**	.74**	-.05	-.25**	-.07	-.17**	-.25**	-.24**
2		1	.71**	.57**	.49**	.80**	-.09	-.29**	-.09	-.21**	-.31**	-.23**
3			1	.62**	.60**	.85**	-.03	-.28**	-.09	-.18**	-.33**	-.32**
4				1	.55**	.81**	-.04	-.32**	-.08	-.20**	-.25**	-.30**
5					1	.79**	.04	-.16**	-.05	-.07	-.22**	-.14**
6						1	-.04	-.32**	-.09	-.20**	-.34**	-.31**
7							1	.63**	.43**	.87**	.33**	.30**
8								1	.47**	.90**	.50**	.50**
9									1	.65**	.36**	.26**
10										1	.49**	.45**
11											1	.69**
12												1

** $p < .01$

1.놀이문화지원 2.사회정서지원 3.교육지원 4.공동양육 5.자기성장 6.양육참여 전체 7.양육부담 8.역할부담
9.타인양육 10.양육스트레스 전체 11.사용유발환경 12.과몰입증상 13.과몰입증상 전체 삭제

<표 8>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전체는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부담($r = -.32, p < .01$)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양육부담과 타인양육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 = -.34,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r = -.31, p < .01$)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요인별로 놀이·문화지원은 양육스트레스 전체($r = -.17, p < .01$), 역할부담($r = -.25,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 = -.25,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 = -.24,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양육부담과 타인양육과는 관계가 없었다.

사회·정서지원은 양육스트레스 전체($r = -.21, p < .01$), 역할부담($r = -.29,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 = -.31,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 = -.23,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양육부담과 타인양육과는 관계가 없었다.

교육지원은 양육스트레스 전체($r = -.18, p < .01$), 역할부담($r = -.28,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 = -.33, p < .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 = -.32, p < .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양육부담과 타인양육과는 관계가 없었다.

공동양육은 양육스트레스 전체($r=-.20, p<.01$), 역할부담($r=-.32, p<.01$),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25, p<.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30,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양육부담과 타인양육과는 관계가 없었다.

자기성장은 양육스트레스 전체, 양육부담, 타인양육과 관계가 없었으나 역할부담($r=-.16, p<.01$)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22, p<.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14,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전체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49, p<.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45, p<.01$)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양육부담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33, p<.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3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부담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50, p<.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5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양육 역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r=.36, p<.01$),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r=.26,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이 완화되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3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총수입, 배우자 취업여부, 자녀성별, 자녀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그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총수입, 배우자 취업여부, 자녀성별, 자녀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인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 자기성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이 요인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아버지 연령	.12	.10	.08	.07	.13	.10*
	가정의 총수입	-.04	-.06	-.02	-.04	.01	.02
	배우자						
	취업여부	.08	.05	.09	.06	.10	.06
	자녀성별	-.03	-.03	-.04	-.03	-.09	-.07
	자녀연령	-.09	-.10	-.08	-.09	-.04	-.05
아버 지 양육 참여	놀이·문화지원			-.08	-.10	-.05	-.06
	사회·정서지원			-.09	-.09	-.05	-.05
	교육지원			-.20	-.22*	-.15	-.17*
	공동양육			-.02	-.02	.04	.05
	자기성장			.02	.02	-.02	-.02
아버 지 양육 스트 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05	.05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33	.33***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14	.18**
F		1.68		5.16***		12.12***	
R^2 (adj R^2)		.03(.01)		.15(.12)		.35(.32)	
R^2 변화량(ΔR^2)		-		.12		.20	

* $p < .05$, ** $p < .01$, *** $p < .001$

<표 9>와 같이, 모형 I에서는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주는 간접 효과를 최대한 통제하였다.

모형 II에서는 모형 I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추가하여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참여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 모형 II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16, p < .001$). 전체적인 설명력은 15%(수정된 R^2 은 12%)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추가로 인한 R^2 변화량은 12%로 나타났다. 이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변인 중 교육지원($\beta = -.22, p < .05$)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Ⅲ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12, p<.001$). 전체적인 설명력은 35%(수정된 R^2 은 32%)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추가로 인한 R^2 변화량은 20%로 나타났다. 이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변인 중 교육지원($\beta=-.17, p<.05$)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beta=.33, p<.001$)과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beta=.18, p<.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교육지원($\beta=-.22, p<.05$)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소시키는 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beta=.33, p<.001$)과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beta=.18, p<.01$)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하는 보다 강력한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보다 아버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총수입, 배우자 취업여부, 자녀성별, 자녀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그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아버지의 연령, 가정의 총수입, 배우자 취업여부, 자녀성별, 자녀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인 놀이·문화지원, 사회·정서지원, 교육지원, 공동양육, 자기성장 3단계에서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이 요인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β	B	β	B	β
사회 인구 학적 특성 (통제 변수)	아버지 연령	.24	.17**	.19	.13*	.22	.15**
	아버지 총수입	-.02	-.04	.01	.01	.05	.07
	배우자 취업여부	-.02	-.01	.01	.00	.01	.00
	자녀성별	.10	.07	.08	.06	.02	.02
	자녀연령	-.07	-.07	-.07	-.08	-.04	-.04
아버지 양육 참여	놀이·문화지원			-.11	-.13*	-.08	-.09
	사회·정서지원			.07	.07	.11	.10
	교육지원			-.29	-.30**	-.24	-.26**
	공동양육 자기성장			-.15	-.16*	-.09	-.09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05	.04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38	.36***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07	.08
F		2.61*		6.08***		11.18***	
R^2 (adj R^2)		.04(.03)		.17(.14)		.33(.30)	
R^2 변화량(ΔR^2)		-		.13		.16	

* $p < .05$, ** $p < .01$, *** $p < .001$

<표 10>과 같이, 모형 I에서는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투입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주는 간접 효과를 최대한 통제하였다.

모형 II는 모형 I에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추가하여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 II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6.08, p < .001$). 전체적인 설명력은 17%(수정된 R^2 은 14%)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추가로 인한 R^2 변화량은 13%로 나타났다. 양육참여 하위변인 중 놀이·문화지원($\beta = -.13, p < .05$), 교육지원이($\beta = -.30, p < .01$), 공동양육($\beta = -.16, p < .05$)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성장($\beta = .17, p < .05$)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추가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 III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18, p<.001$). 전체적인 설명력은 33%(수정된 R^2 은 30%)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추가로 인한 R^2 변화량은 16%로 나타났다. 이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변인 중 교육지원($\beta=-.26, p<.01$)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성장($\beta=.13, p<.05$)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beta=.36, p<.0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교육지원, 자기성장,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유의미한 변임임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교육지원($\beta=-.26, p<.01$)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완화시키는 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중 자기성장($\beta=.13, p<.05$)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beta=.36, p<.001$)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과 더불어 아버지가 느끼는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공동양육자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의 실태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과몰입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평균 3.50($SD=.59$)으로 나타났고 사회·정서지원, 공동양육, 교육지원, 놀이·문화지원은 평균 3.50($SD=.59$)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성장에 대한 지원은 평균 3.50($SD=.59$)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이은미, 2023). 즉 공동양육자로서의 양육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56($SD=.5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타인양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결

과와 맥락을 같이한다(오영진, 2021). 타인양육에 의한 아동학대의 보도자료와 COVID-19로 감염에 취약한 자녀를 가정이 아닌 타인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참여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김소영, 2022). 즉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은 평균 2.88($SD=.65$)로 일반 사용유발환경군에 근접하나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은 평균 2.33($SD=.70$)으로 잠재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윤태정(2015)의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점수 유형에 따른 분류기준을 근거로 5점 척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본 연구대상의 유아가 스마트폰 사용을 유발시키는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점수는 평균 14.40($SD=3.25$)점으로 일반 사용유발환경군($M=14$ 점 이하)과 잠재위험 사용유발환경군($M=15\sim 17$ 점) 경계선상에 속하고 있으나 일반 사용유발환경군에 더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 역시 윤태정(2015)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합산한 결과 34.25점($SD=12.05$)으로 본 연구대상의 자녀가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서 과몰입 잠재위험군($M=34\sim 42$ 점)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만3~9세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2.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자기통제력 및 자기 행동 조절력에 미숙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만3세 이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몰입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주기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측정으로 부모는 유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부담과 부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아버지의 자율적이고 즐거운 양육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이방실, 강수경, 정미라, 2017)고 하였고 아내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개입을 받을 경우 아버지들은 배우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껴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김중훈, 이미나, 정미라, 2017).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의 공동양육에 대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내의 지원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버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머니의 지지적인 역할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아내의 지지를 받는 아버지들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양육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녀 양육과 역할부담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과몰

입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자기성장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자기성장에 대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기성장이란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서적을 읽는 것,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사진 기술, 동영상, 편집 등), 아버지 교육에 참여하는 것, 좋은 아버지가 되기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는 것 등을 의미한다. 현대는 다양하고 빠른 스마트폰의 기능을 통해 온라인 서적, 동영상 강의, 온라인 정보수집 등을 통해 자기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 교육의 경우 COVID-19의 세계적 팬데믹으로 대면교육이 축소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되었으며 COVID-19 이후에는 익숙해진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바라보는 유아의 시선은 ‘교육’의 개념보다는 단순히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양육참여의 질을 높이고자 자기성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오히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과몰입증상을 높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자기성장을 도모하는 부모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는 ‘어떻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며 간접교육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유아의 스마트폰 예방을 위해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새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의 양육정보와 교육 등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형태(남지영, 2016)로 많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김미경, 나유미, 이혜정, 2016).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시키고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아버지 교육이 강조되어 왔으나 주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오히려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모교육을 받은 아버지일수록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스스로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발생시켜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서구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주제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복지감, 정신건강, 위험 행동 등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이 다뤄지고 있다(김성은, 2017).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양육에 관련된 지식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아버지로서의 자존감 형성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상황을 어머니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양육의 공동주체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의 관계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특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과몰입증상에 미치는 높은 영향력을 입증함으로써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방법, 아버지의 자기성장을 위한 방식에 대해 새로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유아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해 아버지의 즐거운 양육참여를 도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교육과 아버지의 자기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직접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 I시와 H시의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기간은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COVID-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시기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유발환경과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증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COVID-19가 정리된 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서린 (2014). 영유아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 (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18,21-37.
- 고용노동부 (2019). 일하는 엄마·아빠의 우아한 일, 생활균형. 2019.5.17.
- 고용노동부 (2020). 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2020.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35(5), 141-150.
- 김미경, 나유미, 이혜정 (2016). **부모교육**. 파주: 양성원.
- 김미정, 하지민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83-303.
- 김성은 (201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75-100.
- 김소영 (2022). 양육불안과 자녀와의 관계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간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및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훈, 이미나, 정미라(2017).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에서 부부 갈등과 양육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6(2),81-101.
- 김지영 (2016).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지영 (2016).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충남대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혜미, 이희영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국내 연구동향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107-121.
- 문혁준 (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39-149.
- 박옥순 (2018). 아버지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진아 (2009).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 인식**, 33(4), 163-186.
- 설경옥,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1-9.
- 성수현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아동교육**, 5(2), 54-72.
- 송민선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림, 고선강, 박정윤, 권혜진, 김유경, 진미정 (2010).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341-361.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미란, 김은경 (2016). 아버지의 직무스트레스와 양육태도가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4), 419-429.
- 오규호 (2020).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진 (2021). 부모양육불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재연, 유구종 (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 윤태정 (2015). 만3, 4, 5세유아의스마트폰 과몰입평가척도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현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참여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방실, 강수경, 정미라 (2017). 아버지의 공감능력, 어머니 문지기 역할,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1(6), 437-457.
- 이용이 (200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202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구 (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결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 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조은하 (201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순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교육의 전망. **열린부모교육학회**, 19(-), 3-7.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21, 407-412.
- Crininc,K. & Low,C.(2002). Everyday stress and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5. *Infant&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Parke, R.(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ABSTRACT

The Effect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Rearing Stress on Children's Excessive Smartphone Immersion

Son, Tae-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rearing stress on children's excessive immersion in smartphones, focusing on fa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study includes 309 fathers with young children enrolled in childcare centers in I city and H city, Gyeonggi-do. In addition to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father's rearing involvement, rearing stress, and children's excessive smartphone immersion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using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rearing stress wer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environment that induced children's smartphone use and excessive immersion. Interestingly, father's rearing stress was found to have a higher explanatory power compared to father's rearing involvement.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it empirically investigates and verifie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father's rearing stress as a co-caregiver in reduc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children's excessive smartphone immersion and preventing such behavior.

Keywords : father's rearing involvement, rearing stress, smartphone use induction environment, excessive immersion in smartphone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 :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 *

서 희 경**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 유아교육기관 유아반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245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자녀 인성 수준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유아기 자녀 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유아기 자녀의 인성 발달에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의미있는 교육모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아 인성,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매개효과

※ 투고일 : 2023년 04월 29일 / 수정본 접수일 : 2023년 0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06월 20일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장일어린이집 교사

I. 서론

인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이후 삶의 방향과 도덕적 행동 수준을 결정하고(우영효, 2005), 개개인의 본질적인 요소(Berkowitz, Grych, 2000)이나 교육과 환경에 의해 습득, 변형되어 간다(조난심, 윤현진, 이명중, 차우규, 2003). 그리고 이는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비교적 개인의 삶에서 매우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을 지닌다(조벽, 2016). 따라서 가소성이 높은 영유아기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성품, 즉 인성이 발달하도록 인성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공,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성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숙자, 김현정, 2012; 윤소연, 2018).

미래사회 인재에게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성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질이 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급기야 2015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법이라는 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필요성을 극명히 보여 준다(김은영, 2015). 인성교육의 목표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함양에 두고, 학령기 아동의 인성발달을 국가적 과제로 명시하였다(인성진흥법, 2015).

한편 유아들의 인성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미있는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이 계발된다. 그래서 일찍이 Bandura는 관찰학습이론을 제시하며 유아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을 내면화한다고 보았다(김선아 외 2006). 뇌과학 이론에서도 거울 뉴런(mirror neurons)은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 감정을 머릿속에서 추측하고 모방할 뿐 아니라 인간의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런 거울 뉴런으로 인해 유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최혜순, 이미현, 김계중, 2019).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조가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의 공백을 직, 간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조부모세대와 가까이 지내는 경향이 높다(이유미, 이정은, 2013). 본래 우리나라 전통육아에 따르면 조부모는 아기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놀이를 담당하는 주체이다(안경식, 2003). 엄격한 가부장제도의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조부모와 손자녀 간 친밀감을 바탕으로 어린 손자녀에게 식사예절, 인사 예절 등 기본적인 교육과 일상생활 습관을 훈련시킨다.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조급한 감정 표출 대신 절제하는 것의 가치와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 주기도 한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치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부모를 대신하여 질책 보다는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어린 손자녀를 대하는 조부모의 존재는 유아의 인성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간 동안 유아교육기관 이용이 많이 제한되었다. 그로인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조부모에 대한 양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숙인, 2021). 이처럼 부모가 조부모와 양육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공동양육자로서 부모가 조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유아기 자녀에게는 관찰학습 내용이 되어 유아의 인성 발달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부모-손자녀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부모의 우울감 및 양육스트레스(박혜리, 2020; 이은양, 2019; 신유미, 2015; 김희동, 2013; 배종필 2012; 이미영, 2008; 이화진, 2004), 양육 경험, 양육 참여, 양육 지원(진은희, 2021; 박혜지, 2020; 조계정, 2019; 방지선, 2017; 최혜선, 2016; 신경숙, 2010; 정다겸, 2007), 양육 태도(한주연, 2021; 황순영, 2015),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진은희, 2021) 등 맞벌이 기혼 자녀를 위하여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양육자로서 조부모가 느끼는 어려움만 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아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으로서 공동양육자인 부모-조부모 간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다행히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살펴본 정영미(2006)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역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양육자로서 자녀 인성 발달의 모델이 되는 부모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유아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 변인들 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간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유아교육기관 유아반(만3~5세)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의 학부모 245명이다.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전자설문 링크를 전달하였으며 그 중 본 연구 취지에 자발적 협조 의사를 보인 부모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245)

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기준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아버지	65	26.5	동거	동거	26	10.6
	어머니	180	73.5		비동거	219	89.4
연령	~35세	40	16.3	연령	50대	14	5.7
	36~40세	98	40.0		60대	137	55.9
	41~45세	64	26.1		70~74세	75	30.6
	45세 이상	43	17.6		75세 이상	19	7.8
	고졸	22	9.0		학력	초졸	33
부 모 학력	전문대졸	42	17.1	중졸		35	14.3
	대졸	137	55.9	고졸		113	46.1
	대학원 이상	44	18.0	대졸 이상		64	26.1
취업 여부	미취업	56	22.9	조 부 모 만남 빈도	매일	73	29.8
	파트타임	39	15.9		일주일에 한두 번	76	31.0
소득 수준	전일제	150	61.2		한 달에 한두 번	64	26.1
	300만원 이하	51	20.8		서너 달 한두 번	26	10.6
	400만원 이하	41	16.7		일 년에 한두 번	6	2.4
	500만원 이하	62	25.3	나쁘다	24	9.8	
600만원 이상	91	37.1	건강	보통이다	134	54.7	
자녀 성별	남	125		51.0	좋은 편이다	87	35.6
	여	120	49.0	경제력	하	56	22.9
자녀 연령	만3세	87	35.5		중	119	48.6
	만4세	58	23.7		상	70	28.6
자녀 출생 순위	만5세	100	40.8				
	외동	95	38.8				
	첫째	68	27.8				
	둘째	65	26.5				
	셋째 이상	17	6.9				

2. 연구도구

1)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은설(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칙도에

서는 중학생 손자녀가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조부모에 대한 태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나는 부모님의 생신을 챙겨드린다’, ‘나는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문항수와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82$ 이다. 변인에 따른 문항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문항수와 신뢰도

변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10	1,2,3,4,5,6,7,8,9,10	.82

2)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조부모와 유아의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부모용으로 제시된 진지혜(2012)의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친밀감을 측정하는 방식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문항의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우리 아이는 조부모와 지내는 것을 즐거워한다’, ‘우리 아이는 조부모를 가깝게 느낀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와 유아기 손자녀의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부모-손자녀의 친밀감의 문항수와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86$ 이다. 변인에 따른 문항과 신뢰도는 <표 3> 과 같다.

<표 3>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문항수와 신뢰도

변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4	1, 2, 3, 4	.86

3) 유아기 자녀 인성

본 연구에는 유아기 자녀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초·중·고등학생용 인성평가 도구를 유아용으로 개발한 임성혜(2016)의 유아 인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6가지(존중, 나눔, 배려, 협력, 질서, 효)인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인 부모가 가정 내 가족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이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성 중 4가지(배려, 존중, 나눔, 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인성의 4개 하위요인은 ‘우리 아이는 집에서 동생을 잘 돌봐준다’와 같은 배려, ‘우리 아이는 친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와 같은 존중, ‘우리 아이는 자신의 놀잇감을 함께 나누어 사용한다’와 같은 나눔, ‘우리 아이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말이나 편지로 표현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31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유아의 인성이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유아기 자녀 인성의 전체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 = .95$ 이다.

유아기 자녀 인성 하위요인의 내용과 문항 수, 신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유아기 자녀 인성 하위요인 문항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배려	9	1,2,3,4,5,6,7,8,9	.88
존중	12	10,11,12,13,14,15,16,17,18,19,20,21	.86
나눔	5	22,23,24,25,26	.90
효	5	27,28,29,30,31	.88
유아기 자녀 인성	31	1~31	.95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5일 ~ 2021년 6월 25일까지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기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아교육전공 교수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 부모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확인받았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4분 정도로 나타나 본 조사를 수행하는데 무리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본 조사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유아교육기관 유아반(만3~5세)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의 학부모 중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문조사는 전자 설문지로 만들어져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본 연구 취지에 자발적 협조의사를 보인 부모만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설문지에 총 24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응답결과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아기 자녀 인성,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

가.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수준

부모가 지각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전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수준 (N=245)

요인	M	SD	실제값(범위)	
			최소값	최대값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3.87	.61	1.40	5.00

<표 5>와 같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전체의 평균값은 5점 만점 중 $M=3.87(SD=.61)$ 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 위와 같은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수준 차이

변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M	S.D	t or F (Scheffè)		
부 모	부모 성별	아버지	3.75	.68	-1.86
		어머니	3.92		
	부모 연령	~ 35세	3.84	.67	.57
		36~40세	3.87	.59	
		41~45세	3.83	.61	
		45세 이상	3.98	.60	
	부모 학력	고졸	3.79	.73	.78
		전문대졸	3.93	.48	
		대졸	3.84	.61	
		대학원 이상	3.96	.66	
	부모 취업 여부	미취업	3.84	.56	.10
		파트타임	3.88	.60	
		전일제	3.88	.63	
	부모 가계의 소득수준	~ 300만원	3.81	.58	1.66
		300만원 ~ 400만원	3.84	.69	
400만원 ~ 500만원		3.78	.64		
500만원 이상		3.98	.55		
조부모님 연령	50대	3.93	.46	1.29	
	60대	3.90	.66		
	70~74세	3.77	.48		
	75세 이상	4.03	.69		
조부모님 학력	초졸	3.88	.49	.084	
	중졸	3.83	.57		
	고졸	3.89	.66		
	대졸 이상	3.87	.58		
조 부 모	조부모님과 동거 여부	동거	3.93	.65	.51
		비동거	3.87	.60	
	조부모님과 만남 빈도	매일	3.89	.63	.62
		일주일에 한두 번	3.93	.50	
		한 달에 한두 번	3.81	.61	
	조부모님 경제력	서너 달에 한두 번	3.81	.77	1.32
하		3.68	.48		
중하		3.91	.61		
중		3.83	.63		
조부모님 건강상태	중상	3.99	.57	3.18*	
	상	3.99	.61		
	나쁘다(a)	3.60	.80		
조부모님 건강상태	보통이다(b)	3.87	.53	(a<c)	
	좋은 편이다(c)	3.95	.64		

*p<.05

<표 6> 과 같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수준이 부모와 조부모 변인에 따라 차이를 살

폐분 결과, 부모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부모 변인에 따라서도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부모님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18, p<.05$).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나쁘다’와 ‘좋은 편이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수준

부모가 지각한 조부모-손자녀의 친밀감 전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7> 와 같다.

<표 7>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수준 (N=245)

변인	M	SD	실제값(범위)	
			최소값	최대값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4.10	.77	1.00	5.00

<표 7>와 같이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 수준 전체의 평균값은 $M=4.10(SD=.77)$ 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 위와 같은 조부모-손자녀의 친밀감 수준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조부모-손자녀의 친밀감 수준 차이 (N=245)

변인	조부모-손자녀의 친밀감			
	M	S.D	t or F	
자녀 성별	남	4.12	.78	.37
	여	4.08	.76	
자녀 출생순위	외동	3.94	.82	3.08*
	첫째	4.10	.80	
	둘째	4.25	.63	
	셋째 이상	4.40	.68	
자녀 연령	만3세	4.07	.73	.96
	만4세	4.22	.66	
	만5세	4.05	.86	
조부모님 연령	50대	4.27	.82	2.81*
	60대	4.20	.71	
	70~74세	3.92	.80	
	75세 이상	3.91	.91	
조부모님 학력	초졸	3.99	.75	9.33*
	중졸	3.61	1.03	
	고졸	4.32	.62	
	대졸 이상	4.02	.72	

조부모님과 동거 여부	동거	3.77	1.07	-2.32*
	비동거	4.14	.72	
조부모님과 만남 빈도	매일	4.19	.83	1.51
	일주일에 한두 번	4.17	.63	
	한 달에 한두 번	3.99	.73	
	서너 달에 한두 번	3.93	.96	
조부모님 경제력	하	3.54	1.20	4.64*
	중하	4.10	.76	
	중	4.05	.69	
	중상	4.36	.61	
조부모님 건강상태	상	4.26	.76	5.83*
	나쁘다(a)	3.77	1.07	
	보통이다(b)	4.03	.74	
	좋은 편이다(c)	4.30	.66	

* $p < .05$

<표 8>과 같이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수준 차이를 자녀와 조부모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녀 변인 중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08, p < .05$).

즉, 외동보다는 다자녀일 때, 다자녀 중에서도 출생 순위가 늦을수록 조부모-손자녀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에 있어 손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변인 중에서는 조부모 연령($F=2.81, p < .05$), 조부모와 동거 여부($t=-2.32, p < .05$), 조부모 경제력($F=4.64, p < .05$), 조부모님 건강상태($F=5.83, 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

유아기 자녀의 인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 (N=245)

하위요인	M	SD	실제값(범위)	
			최소값	최대값
배려	3.86	.60	2.00	5.00
존중	4.01	.55	2.17	5.00
나눔	3.85	.68	1.60	5.00
효	4.00	.64	2.20	5.00
인성전체	3.94	.54	2.23	5.00

<표 9>와 같이 유아기 자녀 인성 전체의 평균값은 ($M=3.94, SD=.54$)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 인성의 각 하위요인 수준을 살펴 본 결과, '존중'의 평균값은 ($M=4.01, SD=.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효'($M=4.00, SD=.64$), '배려'($M=3.86, SD=.60$)의 순이며, '나눔'의 평균값은 ($M=3.85, SD=.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유아기 자녀 인성 수준 차이 (N=245)

변인		유아기 자녀 인성		
		M	SD	t or F
자녀 성별	남	3.91	.57	-.83
	여	3.97	.49	
자녀 출생순위	외동	3.85	.48	3.1*
	첫째	3.95	.57	
	둘째	3.98	.57	
	셋째 이상	4.25	.46	
자녀 연령	만3세	3.84	.55	2.6
	만4세	3.96	.56	
	만5세	4.01	.50	

* $p<.05$

<표 10>과 같이 유아기 자녀의 인성 수준을 유아기 자녀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출생순위($F=3.1, p<.05$)에 따라 자녀 인성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동보다 형제 있는 자녀가, 형제 있는 자녀 중에서도 출생 순위가 늦을수록 유아의 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간의 관계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 과 같다.

<표 11>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와 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간의 상관관계 (N=245)

	1	2	3	4	5	6	7
1.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	1						
2.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54***	1					
3. 유아기 유아 인성 전체	.55***	.47***	1				
4. 배려	.47***	.37***	.90***	1			
5. 존중	.55***	.47***	.94***	.80***	1		
6. 나눔	.42***	.35***	.82***	.66***	.68***	1	
7. 효	.49***	.50***	.85***	.65***	.75***	.70***	1

** $p < .01$, *** $p < .001$

<표 11> 과 같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유아의 친밀감, 유아 인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54, p<.001$)가 나타났다. 즉,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조부모-손자녀 유아 간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유아 인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5, p<.001$)가 나타났다.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는 유아 인성의 모든 하위변인과도 $r=.55\sim.42$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는 유아 인성 중 존중 ($r=.55, p<.001$)하는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효($r=.49, p<.001$), 배려 ($r=.47, p<.001$), 나눔($r=.42, p<.001$)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부모-손자녀 유아의 친밀감과 유아 인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7, p<.001$). 조부모-손자녀 유아의 친밀감은 유아 인성의 모든 하위 변인과도 $r=.50\sim.35$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부모-손자녀 유아의 친밀감은 유아 인성 중 효($r=.50, p<.001$)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존중 ($r=.47, p<.001$), 배려 ($r=.37, p<.001$), 나눔 ($r=.35, p<.001$)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변인으로, 유아기 자녀 인성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Baron & Kenny의 3

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2> 과 같다.

<표 12>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 (N=245)

단 계	경로		B	S.E.	β	R ²	F
	독립	종속					
1	(상수)		1.48	.27		.29	97.35***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68	.07	.54***		
2	(상수)		2.06	.18		.30	64.28***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	유아기 자녀 인성	.48	.05	.55***		
3	(상수)		1.80	.19		.35	105.03***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		.37	.05	.41***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기 자녀 인성	.17	.04	.25***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와 같이 1단계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독립변인)이 조부모-손자녀 친밀감(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54, p < .001$)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7.54, p < .001$).

2단계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독립변인)가 유아기 자녀 인성(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유아기 자녀 인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55, p < .001$) 유아기 자녀 인성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4.28, p < .001$).

마지막 3단계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독립변인)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독립변인)가 유아기 자녀 인성(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 인성에 미치는 영향($\beta=.41, p < .001$)은 2단계에서 확인된 영향($\beta=.55, p < .001$)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 친밀감(매개변인)이 유아 인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25, p < .001$)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 인성에 미치는 영향의 총 설명력이 35%로 증가하였다($F=105.03, p < .001$). 따라서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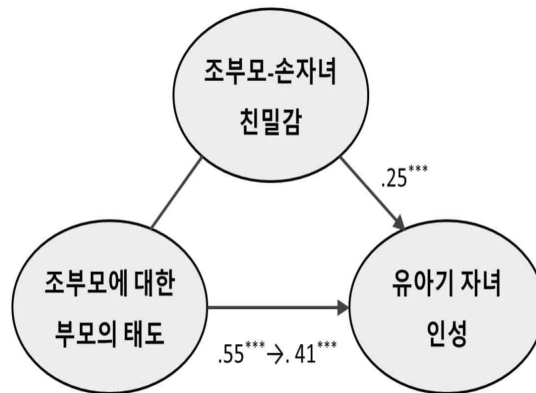
<표 13>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N=245)

<i>B</i>	<i>S.E.</i>	LLCI	ULCI
.12	.03	.06	.19

$p < .05$

<표 13> 과 같이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모두 0 이상이므로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지각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최은설(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 변인(성별, 연령, 학력, 취업여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조부모 변인(조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조부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정영미(2006)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소원하게 된다는 정영미(2006)의 연구 결과와 매우 일치한다. 건강한 조부모일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의 사기가 저하되고 스스로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쉽다. 그런 점에서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노년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주장한 서미령(2017)연구도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처럼 조부모의 건강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연관되어 있다면 조부모의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경우, 조부모에 대한 돌봄의 여유가 없을 것이며 이는 유아의 인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조부모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가족관계와 유아 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모가 지각한 유아기 자녀와 조부모의 친밀감 수준과 가정에서 부모가 지각한 유아기 자녀의 인성 수준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인성 중 '존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효, 배려, 나눔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인성발달 수준을 살펴본 성명희와 김은주(2015)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유아기 자녀의 인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출생순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인성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후순위 자녀들의 경우 존중, 효, 배려, 나눔의 인성을 확대된 가족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자녀 인성 수준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유아의 인성, 조부모-손자녀 친밀감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조부모 간의 친밀도는 부모의 태도에 따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최은설(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손자녀-조부모의 관계는 중간세대인 부모의 태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정영미(200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조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가 조부모에 대해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는 한정란과 김귀자(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어린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 그 중에서도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사회적 관계가 유아기 자녀의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부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유아기가 주변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나눔의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결정적 시기(이주희, 2019)임을 고려하면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는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울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 된다. 그런점에서 가정 내 양육을 통해 가장 가깝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조부모와 부모는 자녀의 가장 강력한 모델로 정서조절능력이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김진희, 2007; 송채봉, 2009; 배조경, 2012; 채일숙, 2017) 연구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 손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부모 등 가족 간에 보여주는 존중과 배려는 유아기 자녀의 인성 발달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부모에 대한 부모 태도가 조부모 손자녀 친밀감을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매개로 유아기 자녀 인성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아동과 조부모의 친밀감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박의순, 1990; 백문화, 1991; 정영미, 2006; 최은설, 2012). 또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에서 아동과 조부모의 친밀감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최은설의 연구(2012)와도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 인성교육의 가치가 재조명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조부모-손자녀 친밀감을 촉진시키며 유아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 인성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 대한 인식 점검 및 개선, 조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기술 등의 교육기회 제공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유아기 자녀의 인성 발달에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의미있는 교육모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부모 자신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하여 조부모가 실제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와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부모와 조부모가 동시에 평정, 이를 서로 비교하며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유아기 자녀 인성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여겨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는 아버지 응답자수의 부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니 집단을 구분,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부모’로 통합처리하여 그에 대한 오차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부모집단을 부(父)와 모(母)로 구분하여 자료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장에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만나면서도 비대면 전자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의존해야 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니 부모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된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 조부모-손자녀 친밀감, 유아 인성 간의 상호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선아, 백경숙, 백선복, 서지영, 성윤숙, 승금희, 이승현, 최우진(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대왕사.
- 김숙자, 김현정(2012). 전통적 가치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모색, **아동교육**, 21(3), 19-34.
- 김은영(2015). 주제발표 : 자녀인성을 위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방안.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14-**, 61-81.
- 김진희(2007).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동(201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리(2020). 학령전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보상감, 삶의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지(2020). 성인자녀와 사별한 대리양육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질적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지선(2017). 조부모양육의 참여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연구.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조경(2012). 어머니 역할지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필(2012).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 서미령(2017).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명희, 김은주(2015).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중요도 인식 및 인성발달 수준과 요구도 분석. **윤리교육연구**, 0.38, 177-202.
- 송채봉(2009).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숙(2010). 영·유아기 손자녀를 둔 조부모의 양육실태와 지원에 대한 요구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미(2015). 손자녀 돌봄여부가 조부모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식(2003). 우리 조상들의 아이키우기-‘집안’에서의 유아교육, **생태 유아교육연구**, 2(1), 21-39.
- 우영호(2005). 동화를 통한 유아 인성교육방법 연구. **아동교육**, 14(1), 37-48.
- 윤소연(2018). 신체활동을 통한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2008). 조손가정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미, 이정은(2013). 전통육아방식에 대한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간 인식 비교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9-, 267-299.
- 이은양(2019). 도시노인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2019). 1·3세대 연계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진(2004). 조손세대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조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성진흥법(2015).
- 정다겸(2007).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미(2006). 조부모-손자녀 친밀감과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서울 소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계정(2019). 조부와 조모가 함께하는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난심, 윤현진, 이명준, 차우규(2003). **도덕교육학신론**. 서울: 문음사.
- 조벽(2016). **인성이 실력이다: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조벽 교수의 제안**. 서울: 해냄출판사.
- 조숙인(2021).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 **육아정책포럼 68-**, 18-28.
- 진은희(2021). 코로나19 시기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지혜(2012). 유아의 기질과 조부모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 조부모와 손자녀 친밀감의 중재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일숙(201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인성 발달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영(1991). 조부모와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와 세대간 인식일치 정도가 유아의 정서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1**, 159-184.
- 최은설(2012)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연구 - 아동과 조부모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2016). 조부모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순, 이미현, 김계중(2016). **영유아 뇌발달 인성교육**. 서울: 어가.
- 한정란, 김귀자(2003). 부모의 노인 및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노인복지연구 19**, 61-82.
- 한주연(2021). 어머니와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자기조절력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순영(2015).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owitz, Grych(2000). Early character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1*(1), 55-72.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Attitudes toward Grandparents
on Children's Personality in Early Childhood
: The Mediating Effect of Grandparent-Grandparent
Intimacy.**

Seo, he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s' attitude toward grandparents on their children's personalities in infancy through grandparent-grandchild intimacy. To this end, an electronic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45 parents of children enrolled in nursery classe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attitude toward grandparents, grandparent-grandchild intimacy, and children's character levels all appeared to be good. Second, parental attitude toward grandparents, grandparent-grandchild intimacy, and personality of children in infancy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ird, it was found that parents' attitudes toward grandpar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children's personalities in infancy, a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grandparent-grandchild close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usal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suggest that parents' attitude toward grandparents is a meaningful educational model for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n infancy today, when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Keywords : Parents' attitude towards their childrens' grandparents, Early childhood personality, Grandparent-grandchild intimacy, Mediation effect

「아동중심실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및 출판 시, 다음 각 호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기여 정

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된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한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8.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한다.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제6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2.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 출판시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위원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공정성.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3.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연구윤리 협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협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절차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2. 제보자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위반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윤리 검증원칙)

1. 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판정)

1.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

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20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5장 후속조치

제21조(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 하여 공지
 - ③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제23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기록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참여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